

### 2016년 6월 18일 [지방직 9급 공무원] 한국사 A책형

‘2016년 지방직 9급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사 A책형 해설을 공개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황의방 -

#### [ 총평 ]

최근의 지방직 9급 한국사 문제는 사료와 관련된 문제형태가 다수 출제되고 있는데, 2016년에도 그 유형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번 시험에서는 지엽적인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흐름을 강조하는 최근의 한국사 출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합격을 위해서는 단순암기는 지양하여야 한다. 더불어 지엽적인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서의 회독 수를 늘려 눈에 많이 익혀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16년 지방직에서는 무신정권의 시기 문제, 예송논쟁 등이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고, 대부분은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95점 이상 정도가 되어야 합격 안정권일 것이다.

#### [ 문제 분석(분포도) ]

| 구 분          | 문 항 | 정 치                        | 경 제    | 사 회       | 문 화           |
|--------------|-----|----------------------------|--------|-----------|---------------|
| 한국사의 바뀔이해    | -   |                            |        |           |               |
| 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 |     | ○ 신석기                      |        | ○ 신라 말 정세 |               |
| 고 대          |     | ○ 무령왕<br>○ 삼국전쟁            | ○ 민정문서 |           |               |
| 중 세          |     | ○ 무신정권의 변천                 |        | ○ 특수행정구역  | ○ 김부식<br>○ 지눌 |
| 근 세          |     | ○ 세종<br>○ 숙종<br>○ 예송논쟁(남인) |        |           |               |
| 근대 태동기       |     | ○ 영조                       | ○ 대동법  | ○ 신분제의 동요 |               |
| 근 대          |     | ○ 임오군란<br>○ 갑오개혁           |        |           |               |
| 일제 강점기       |     | ○ 1910년대 식민통치<br>○ 민족운동    |        |           |               |
| 현대           |     |                            | ○ 농지개혁 |           |               |

문 1. 밑줄 친 ‘이 토기’가 주로 사용되었던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토기는 팽이처럼 밑이 뾰족하거나 둥글고, 표면에 빗살처럼 생긴 무늬가 새겨져 있다. 곡식을 담는 데 많이 이용된 이 토기는 전국 각지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대표적 유적지는 서울 암사동, 봉산 지탑리 등이다.

- ① 농경과 정착 생활이 이루어졌다.
- ② 고인돌이나 돌널무덤을 만들었다.
- ③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고 계급이 발생하였다.
- ④ 군장이 부족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답1 >

참고> **쌤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15쪽, 신석기 시대의 생활**

해설>

자료의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로 신석기 시대 대표 토기이며 서울 암사동 유적은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로 1980년대까지 여러 차례 발굴되었다.

CHECK>

②③④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한 사회는 청동기 시대 이후이다.

문 2. 다음과 같은 문서가 작성되었던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는 논, 밭, 촌주위답, 내시령답 등 토지의 종류와 면적을 기록하고, 사람들은 인구, 가호, 노비의 수와 3년 동안의 사망, 이동 등 변동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 밖에 소와 말의 수,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의 수까지 기록하였다.

- ① 관료에게는 관료전을, 백성에게는 정전을 지급하였다.
- ② 인구는 남녀 모두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 ③ 전국을 9주로 나누고, 주 아래에는 군이나 현을 두어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 ④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전시과 제도를 운영하였다.

답4 >

참고> **삼국사기(황의방 한국사) 78~79쪽, 신라 민정문서**

해설> 신라 민정문서는 1933년 일본 도다이사(東大寺) 쇼소인(正倉院)에서 발견된 통일신라 당시 서원경(청주)의 4개 촌의 장적(帳籍) 문서로, 당시 촌락의 경제 상황과 국가의 세무 행정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CHECK>

- ① 관료전 지급은 통일신라 신문왕, 정전의 지급은 성덕왕 때 있었다.
- ② 사람의 다소에 따라 9등급, 연령과 성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였다.
- ③ 통일신라 신문왕은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나누어 지방 행정구역을 정비하였다.
- ④ 경종 때 중앙 집권 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전시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문 3. 다음 ㉠의 주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시기에 ㉠ 은(는) 금, 은, 구리, 쇠 등 광산물을 채취하거나 도자기, 종이, 차 등 특정한 물품을 생산하여 국가에 공물로 바쳤다.

- ① 군현민과 같은 양인이지만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      ② 죄를 지으면 형벌로 귀향을 시키는 처벌을 받았다.
- ③ 지방 호족 출신으로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④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답1 >

참고> **삼국사기(황의방 한국사) 167쪽, 고려의 특수행정구역**

해설> 제시된 자료에서 ㉠은 '소'로써 소의 주인은 수공업업 담당하여 먹, 종이, 금, 은 등의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였다. 특수행정 구역에 생활하던 주민은 양인 신분이다.

CHECK>

- ① 고려시대 특수 행정 구역에 거주한 주민은 양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군현민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
- ② 귀족의 정치적인 몰락으로 인식되었던 본관으로의 귀향형은 고려시대에 존재하였다.
- ③ 고려시대 향리는 중류층으로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던 말단 행정직이다.
- ④ 고려시대 노비는 매매·증여·상속의 대상이었다.

문 4. 다음 대화에 나타난 수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 호(戶)에 부과하던 공물을 토지에 부과하게 되면서 땅이 많은 대가(大家)와 거족(巨族)이 불만을 가져 원망을 하고 있으니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심히 걱정스럽군.

○ 을 : 부자는 토지 소유에 비례하여 많은 액수의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불평하지만, 수확과 노동력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도 여태껏 그럭저럭 납부 해온 것을 왜 못 내겠소?

- ①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② 농민의 군포 부담을 1년에 1필로 줄여 주었다.
- ③ 지주에게 토지 1결당 2두의 결작미를 징수하였다.
- ④ 농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하였다.

답1 >

참고> **삼국사기(황의방 한국사) 309~310쪽, 대동법**

해설> 대동법은 광해군 때 이원익, 한백경의 주장으로 선혜청을 설치하여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실시하였고(1608), 숙종 때 허적의 주장으로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하였으며(1708), 1결당 12두를 납부하게 되었다.

CHECK>

- ②③ 영조는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는 균역법을 시행하였는데, 감소된 재정에 대하여는 지주에게 결작미를 부담시켰다(1750).
- ④ 인조는 영정법을 시행하여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1635).

※ 본 자료는 저작권법 제97조5항(권리의 침해죄)에 의거하여 무단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를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 5. 다음 법령의 시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
  - (나) 소유권의 명목이 분명하지 않은 농지
2. 다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 (중략) ...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① 협동조합이 모든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② 많은 일반 민유지가 총독부 소유로 되었다.
- ③ 소작지가 크게 줄어들고 자작지가 늘어났다.                      ④ 지주 소유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답3 >

참고> **쌤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551~552쪽, 농지개혁**

해설> 이승만 정부에서 시행한 농지개혁은 1949년에 법이 제정되었고 1950년에 시행되었다. 농지 개혁은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산림과 임야를 제외한 3정보 이상의 농지를 가진 부재지주의 농지를 국가에서 유상매입하고, 영세 농민에게 3정보를 한도로 유상 분배하여 5년간 수확량의 30%씩을 상환하도록 하였다.

CHECK> ① 농지 개혁의 기본 방향은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었다.

- ② 제1공화국 당시 조선총독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 ④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은 유상매입·유상분배가 원칙이었다.

문 6. 다음 사실들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고구려 - 살수에서 수 양제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 ㄴ. 백제 - 사비로 도움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 ㄷ. 신라 - 울령을 반포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 ㄹ. 가야 - 고령 지역의 대가야가 신라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 ① ㄴ→ㄷ→ㄹ→ㄱ                      ② ㄴ→ㄹ→ㄷ→ㄱ                      ③ ㄷ→ㄴ→ㄹ→ㄱ                      ④ ㄷ→ㄹ→ㄱ→ㄴ

답3 >

참고> **쌤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48~56쪽, 삼국 항쟁의 전개**

해설> ㄱ. 수나라의 양제는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에 침략하였으나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항하여 대승리를 이루어냈다(612).  
 ㄴ. 대외 진출이 수월한 사비(부여)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하여 백제의 중흥을 꾀하였던 왕은 백제 성왕이다(538).  
 ㄷ. 법흥왕(514~540)은 병부를 설치하여 군사권을 장악하였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여 국가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ㄹ. 진흥왕(540~576)은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는 등 영토를 확장하였다.

문 7.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주전도감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백성들이 화폐를 사용하는 유익함을 이해하고 그것을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 사실을 중요에 알리십시오.”라고 하였다. 이 해에 또 은병을 만들어 화폐로 사용하였는데, 은 한 근으로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떠서 만들었고 민간에서는 활구라고 불렀다.

- ①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하였다.
- ② 여진 정벌을 위해 윤관이 건의한 별무반을 설치하였다.
- ③ 지방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 사심관과 기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 ④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 제도를 시행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답2 >

참고> **쌤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129, 161쪽, 고려 숙종의 정책**

해설> 고려 숙종 때에는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 동전과 활구(은병)라는 은전을 만들었으나 널리 유통되지 못하였다. 자료의 은병은 의천의 주장으로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서 은1근으로 만든 고가의 화폐로, 은병 하나의 값은 포 100여 필이나 되었다.

CHECK>

- ① 고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국에 12목을 설치하여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였다(983).
- ② 고려 숙종은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특수부대인 별무반을 조직하여 여진족을 북방으로 몰아내었다.
- ③ 고려 태조 왕건은 사심관과 기인제도를 활용하여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려 하였다.
- ④ 고려 광종은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였고 광덕, 준종 등과 같은 독자적인 연호도 사용하였다.

※ 본 자료는 저작권법 제97조5항(권리의 침해죄)에 의거하여 무단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를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 8. 다음 내용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한 마음(一心)을 깨닫지 못하고 한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중생인데, 부처는 이 한 마음을 깨달았다.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오직 한 마음에 달려 있으니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를 찾을 수 없다.  
○ 먼저 깨치고 나서 후에 수행한다는 뜻은 못의 얼음이 전부 물인 줄은 알지만 그것이 태양의 열을 받아 녹게 되는 것처럼 범부가 곧 부처임을 깨달았으나 불법의 힘으로 부처의 길을 닦게 되는 것과 같다.

- ① 국청사를 창건하고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 ② 부석사를 창건하고 화엄 사상을 선양하였다.
- ③ 불교계를 개혁하기 위해 수선사 결사를 주도하였다.
- ④ 심문화쟁론을 저술하여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답3 >

참고> **쌤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187~188쪽, 지눌의 활동**

해설> 지눌은 선과 교학이 근본에 있어 둘이 아니라는 사상 체계인 정혜쌍수를 사상적 바탕으로 철저한 수행을 선도하였다. 지눌은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을 위한 노력과 함께,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의 확인을 아울러 강조한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CHECK> ① 의천 ② 의상 ④ 원효

문 9. 다음 정책을 시행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속대전을 편찬하여 법령을 정비하였다.  
○ 사형수에 대한 삼복법(三覆法)을 엄격하게 시행하였다.  
○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였다.

- ① 신해통공을 단행해 상업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였다.
- ② 삼정이정청을 설치해 농민의 불만을 해결하려 하였다.
- ③ 봉당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 ④ 환곡제를 면민이 공동출자하여 운영하는 사창제로 전환하였다.

답3 >

참고> **쌤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300~301쪽, 영조의 정책**

해설> 영조는 자신의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완론 탕평책).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본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으며, 이조 전랑의 후임자를 천거하는 권한과 3사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게 해 주던 악습관행을 없앴다.

CHECK> ① 정조 ② 철종 ④ 고종(흥선대원군)

문 10.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6조 태형은 태로써 볼기를 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① 회사령 공포를 듣고 있는 상인
- ② 경의선 철도 개통식을 보는 학생
- ③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설립식에 참석한 기자
- ④ 대한광복군정부의 군사 훈련에 참여한 청년

답4 >

참고> **쌤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459~462쪽, 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

해설> 1910년대 헌병무단통치 시기에는 조선태형령(1912~1920)을 시행하였는데 갑오개혁에서 폐지한 태형을 부활시켜 조선인에게만 적용하였다.

CHECK>

- ① 일제강점기 일제는 회사 설립 시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공포하였다(1910). 자료 이전에 나타난 상황이다.
- ② 경의선은 프랑스에 의해 최초 착공되었고 일본이 완성하였다(1906).
- ③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설치되었다.
- ④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에 이상설과 이동휘를 정·부통령으로 하여 대한광복군정부를 수립하였다(1914).

※ 본 자료는 저작권법 제97조5항(권리의 침해죄)에 의거하여 무단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권을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 11.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곳곳에서 도적이 벌 때같이 일어났다. 이에, 원종, 애노 등이 사벌주(상주)에 의거하여 반란을 일으키니, 왕이 나마 벼슬의 영기에게 명하여 잡게 하였다.

- ① 지방에서는 호족 세력이 성장하였다.
- ② 신진 사대부가 대두하여 권문세족을 비판하였다.
- ③ 농민들은 전정, 군정, 환곡 등 삼정의 문란으로 고통을 받았다.
- ④ 봄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게 하는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답1 >

참고> [쌤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65쪽, 신라 말의 정치](#)

해설> 자료는 신라 사벌주(상주)에서 일어난 대표적 농민항쟁인 원종-애노의 난(889)으로 신라 말의 정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CHECK>

- ① 신라 말 지방에서는 성주나 장군을 자칭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는데, 이를 호족이라 한다.
- ② 신진사대부는 고려 무신집권기 이후 과거를 통해 중앙으로 진출한 학자적 관료들로 개혁적·진취적 성향을 가졌다.
- ③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몰락하였다.
- ④ 고국천왕은 을파소를 국상으로 기용하여 진대법을 실시하였다(194).

문 12.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오년 서울의 영군(營軍)들이 큰 소란을 피웠다. 갑술년 이후 대내의 경비가 불법으로 지출되고 호조와 선혜청의 창고도 고갈되어 서울의 관리들은 봉급을 못 받았으며, 5명의 병사들도 가끔 결식을 하여 급기야 5명을 2명으로 줄이고 노병과 약졸들을 쫓아냈는데, 내쫓긴 사람들은 발붙일 곳이 없으므로 그들은 난을 일으키려 했다.

- ① 군대 해산에 반발한 군인들은 의병 부대에 합류하였다.
- ② 보국안민, 제족구민의 대의를 위해 봉기할 것을 호소하였다.
- ③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서울의 하층민들도 참여하였다.
- ④ 충의를 위해 역적을 토벌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유생들이 주동하였다.

답3 >

참고> [쌤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380~381쪽, 임오군란의 경과](#)

해설> 제시문은 임오군란(1882)의 전개 과정이다. 임오군란은 민씨 정권이 일본인 군사 고문을 초빙하여 훈련과 교육을 시킨 별기군(신식 군대)을 우대하고, 구식 군대를 차별 대우한 데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1882).

CHECK>

- ① 정미의병(1907)은 해산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함으로써 조직과 화력이 강화되었다.
- ② 동학농민군은 보국안민, 제족구민의 기치를 내걸고 봉기하였다.
- ④ 의병은 양반 유생들이 주도하여 전개하였다.

문 13. 다음 내용이 포함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사 노비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인신매매를 금지한다.  
○ 연좌법을 폐지하여 죄인 자신 외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 과부의 재혼은 귀천을 막론하고 그 자유에 맡긴다.

- ① 중국 연호의 사용을 폐지하였다.
- ② 독립 협회 활동의 영향을 받았다.
- ③ 군국기무처의 주도 하에 추진되었다.
- ④ 동학 농민 운동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였다.

답2 >

참고> [쌤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399~400쪽, 제1차 갑오개혁](#)

해설> 자료는 제1차 갑오개혁이다. 김홍집 내각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초정부적 회의 기관인 군국기무처를 설치(1894. 6)하고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CHECK> ② 독립협회는 1896년 창립되어 강연회와 토론회의 개최, 신문과 잡지의 발간 등을 통하여 민중에게 근대적 지식과 국권, 민권 사상을 고취하였다.

※ 본 자료는 저작권법 제97조5항(권리의 침해죄)에 의거하여 무단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 14. 밑줄 친 '무덤 주인'이 왕위에 있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1971년 7월, 공주시 송산리 고분군 배수로 공사 도중 벽돌무덤 하나가 우연히 발견되었다. 무덤 입구를 열자, 무덤 주인을 알려주는 지석이 놓여 있었으며, 백제는 물론 중국의 남조와 왜에서 만들어진 갖가지 유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 ① 중앙에는 22부 관청을 두고 지방에는 5방을 설치하였다.
- ②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맞서 나제동맹을 처음 결성하였다.
- ③ 활발한 대외 정복 전쟁으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가야를 완전히 정복하였다.
- ④ 지방에 22개의 담로를 두고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답4 >

참고> **쌈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45, 103~104쪽, 무령왕의 정책**

해설>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양)의 영향을 크게 받아 연꽃 등 우아하고 화려한 백제 특유의 무늬를 새긴 벽돌로 무덤 내부를 쌓았다. 무덤의 주인공이 무령왕과 왕비임을 알리는 지석이 발견되어 연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무덤이기도 하다.

CHECK>

- ① 6세기 성왕은 5부와 5방 제도를 정비하고, 22부의 실무관청을 설치하여 중앙 집권화에 노력하였다.
- ② 5세기 백제의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마립간은 나제동맹을 체결하여 고구려에 대항하였다(433).
- ③ 6세기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장악하는 등 영토를 확장하였다.
- ④ 6세기 무령왕은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하여 왕족을 파견하며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문 15.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묘청의 천도 운동에서 그가 패하고 묘청이 이겼더라면 조선사는 독립적·진취적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일천년래 제일 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라.

- ① 성리학적 유교 사관에 입각한 사략을 저술하였다.
- ②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최고(最古) 역사서를 편찬하였다.
- ③ 우리나라 역사를 단군에서부터 서술한 역사서를 저술하였다.
- ④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 서사시인 동명왕편을 저술하였다.

답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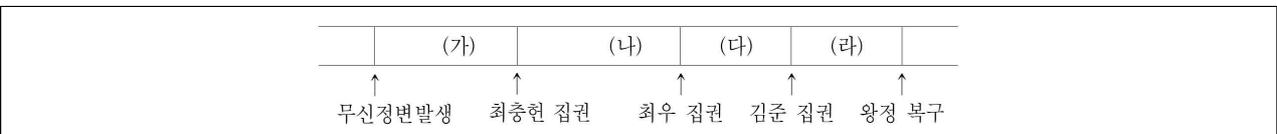
참고> **쌈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132~133쪽, 김부식의 활동**

해설> 자료는 신채호의 조선사 연구초의 일부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일천년래제일대사건이라고 하였다. 밑줄 친 그는 김부식이다. 인종은 김부식에게 명을 내려 묘청 중심의 서경파를 진압하게 하였고, 관군에 의해 약 1년 만에 진압되었다.

CHECK>

- ① 공민왕 때 이체현은 사략을 비롯한 여러 권의 사서를 저술(1357)하였다.
- ② 삼국사기(1145)는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 기전체 서술방법으로 편찬한 역사서이다.
- ③ 삼국유사(1281)는 충렬왕 때에 일연이 편찬한 역사서로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 ④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의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문 16. (가) ~ (라)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가) - 국정을 총괄하는 교정도감이 처음 설치되었다.
- ② (나) - 망야·망소이 등 명학소민이 봉기하였다.
- ③ (다) - 금속활자로 상정고금예문을 인쇄하였다.
- ④ (라) - 고려대장경을 다시 조판하여 완성하였다.

답3 >

참고> **쌈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134~137쪽, 고려 무신정권의 변천**

해설> 무신정변(1170) → 최충현의 집권(1196) → 최우 집권(1219) → 김준 집권(1258) → 왕정 복구(1270)

CHECK>

- ① 최충현은 무신 정권 최고의 권력 기구인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정을 총괄하였다. (나) 시기
- ② 망야·망소이의 난(1176)은 (가) 시기에 발생하였다.
- ③ 상정고금예문은 현존하지 않지만 동국이상국집에 고종 21년(1234)에 강화도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하여 여러 관사에 나누어 보 관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 ④ 팔만대장경(재조대장경)은 고종 때 최우(1219~1249)가 몽골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막아내고자 강화에서 조판에 착수(1236)하여 고종 38년(1251) 완성한 고려의 대장경이다. (다) 시기

※ 본 자료는 저작권법 제97조5항(권리의 침해죄)에 의거하여 무단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 17.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왕이 이순지, 김담 등에게 명하여 중국의 선명력, 수시력 등의 역법을 참조하여 새로운 역법을 만들게 하였다. 이 역법은 내편과 외편으로 구성되었다. 내편은 수시력의 원리와 방법을 해설한 것이며, 외편은 회회력(이슬람력)을 해설, 편찬한 것이다.

- ① 천체 관측 기구인 혼의, 간의 등을 제작하였다.
- ② 경기 지역의 농사 경험을 토대로 금양잡록을 편찬하였다.
- ③ 경자자(庚子字), 갑인자(甲寅字) 등 금속 활자를 주조하였다.
- ④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법을 정리한 향약집성방을 편찬하였다.

답2 >

참고> **쌈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210~211쪽, 세종의 정책**

해설> 세종 때에 만든 **칠정산**은 중국의 수시력(내편)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외편)을 참고로 하여 만든 우리 실정에 맞는 역법서이며,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역법서로 15세기 세계 과학의 첨단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HECK> ② **금양잡록**은 조선 성종 때 **강희맹**이 편찬한 것으로 **금양 지방**을 중심으로 경기 지방의 농사법을 정리하였다.

문 18.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웃차림은 신분의 귀천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까닭인지 근래 이것이 문란해져 상민·천민들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는 것을 마치 조정의 관리나 선비와 같이 한다. 진실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심지어 시전 상인들이나 군역을 지는 상민들까지도 서로 양반이라 부른다.

- ① 불교의 신앙 조직인 향도가 널리 확산되었다.
- ② 서얼의 청요직 진출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 ③ 양민의 대다수를 차지한 농민을 백정(白丁)이라고 하였다.
- ④ 선현 봉사(奉祀)와 교육을 위한 서원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답2 >

참고> **쌈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331~333쪽, 조선후기 신분제의 동요**

해설> 자료는 일성록의 일부로 조선후기 신분제의 동요로 인하여 **향촌에서의 양반들의 권위가 약화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CHECK>

- ① 신앙 조직이었던 향도는 고려시대에 발전되었다.
- ② 서얼들의 청요직 진출은 정조 때 일부 허용이 되었고, 철종 때 완전히 허용되었다(1851. 신해허통).
- ③ 고려시대의 농민은 농업 이외에 국가에서 지정한 특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의무가 없는 사람'의 의미로 백정이라 하였다.
- ④ 16세기 사림이 집권하면서 서원의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문 19. 다음 사실들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김좌진을 중심으로 한 신민부가 조직되었다.  
ㄴ. 민족협동전선론에 따라 정우회가 조직되었다.  
ㄷ.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났다.  
ㄹ. 백정의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형평사가 창립되었다.

- ① ㄱ→ㄴ→ㄹ→ㄷ
- ② ㄱ→ㄹ→ㄷ→ㄴ
- ③ ㄹ→ㄱ→ㄴ→ㄷ
- ④ ㄹ→ㄷ→ㄱ→ㄴ

답3 >

참고> **쌈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493~501쪽,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

해설> ㄱ. 신민부(1925)는 대한독립군단을 중심으로 대한독립군정서 등의 북만주 항일 단체들이 효율적인 투쟁을 위해 통합하여 발족하였다.

ㄴ.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인 정우회(1926)는 조선공산당의 표면 단체로 분파 투쟁의 청산, 사상 단체의 통일, 경제 투쟁에서 정치 투쟁으로의 전환 등을 주장하였다.

ㄷ. 원산의 한 석유 회사의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을 계기로 3,000여 명이 참가하였다(원산 노동자 총파업, 1929).

ㄹ. 백정들은 진주에서 이학찬을 중심으로 조선형평사를 창립하고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1923).

※ 본 자료는 저작권법 제97조5항(권리의 침해죄)에 의거하여 무단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권을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 20. 다음과 같이 주장한 봉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해년의 일은 생각할수록 망극합니다. 그때 저들이 효종 대왕을 서자처럼 여겨 대왕대비의 상복을 기년복(1년 상복)으로 낮추어 입도록 하자고 청했으니, 지금이라도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① 인조반정으로 몰락하였다.
- ② 기사환국으로 다시 집권하였다.
- ③ 경신환국을 통해 정국을 주도하였다.
- ④ 정제두 등이 양명학을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

답2 >

참고> **쌤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228~229쪽, 남인의 활동**

해설> 자료는 갑인예송 당시의 남인의 주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효종의 비의 상으로 발생한 갑인예송(2차 예송논쟁)은 자의 대비의 복제 문제로 서인이 9개월, 남인이 1년설을 주장하였는데, 남인의 1년설이 채택되었다.

CHECK>

- ①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에 의해 광해군과 복인정권은 몰락하였다(1623).
- ② 장희빈의 소생이 세자가 되면서 발생한 기사환국으로 인하여 서인이 몰락하였고 남인이 재집권하였다.
- ③ 경신환국으로 인하여 남인이 역모 혐의를 받아 몰락하고 서인 정권이 수립되었다.
- ④ 양명학자의 대부분은 정권에서 소외된 소론이었다.